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

유철민

1. 서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국제금융통화체계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특권과 전횡을 없애고 화폐류 통의 안정과 국제무역의 금융조건들을 보장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협조를 촉진하고 세계 경제의 부흥을 이룩할수 있는 공정한 체계로 되어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84권 59페이지)

국제금융부문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전횡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대외금융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시기 날로 로골화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금융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제금융시장에 주동적으로 진출하여 금융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리기 위하여서는 국제금융관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오늘날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던 국제금융관계는 발전도상 나라들과 자체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지역적협조와 련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으며 이것은 국제금융관계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국제금융관계를 밝히는데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으로 하여 이에 대한 연구사업이 폭넓게 진행되였다.

대표적인 도서들로서는 《국제금융학》(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6(2017)),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제국주의의 세계경제지배체계와 그 위기》(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2(2013)), 《현대자본주의 국제통화금융관계의 변화와 그 위기》(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0(2011)), 《국제금융기구》(공업출판사, 주체95(2006)) 등을 들수 있다.

도서들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본질과 분류, 주요국제금융기구들의 설립목적과 운영방식, 력사적변천과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였다.

일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는 통화금융분야에서 주로 나라들사이의 협약밑에 예산자금을 출자금으로 하여 조직된 국제적인 경제기구이다.

국제금융기구들은 은행, 기금, 협회, 동맹, 투자회사 및 연구소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조직된다.

도서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제국주의의 세계경제지배체계와 그 위기》에서는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국제통화체계의 형성과 세계은행집단, 국제은행, 지역개발금융기구를 통한 자본주의렬강들의 세계경제지배책동, 국제통화금융체계의 불안정성과 발전도상나라들 사이의 통화금융적협조가 강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도서 《국제금융기구》에서는 주요국제금융기구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리익을 위한 공간

으로 리용되고있다는것을 밝히고 그의 존재와 설립경위, 특징들을 서술하였다.

도서들은 주요국제금융기구들인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을 비롯한 세계적범위의 국제금융기구들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지역적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폭넓은 리해를 가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그러나 도서들에서는 자본주의통화금융기구의 략탈적본질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당시의 국제금융기구제도에서 일어난 변화를 밝히는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던것만큼 최근시기 국제금융기구들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에 대처하여 국제금융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리기 위한 실천적방도들에 대하여서는 제기할수 없었다.

현시기 국제금융기구를 발전도상나라들과 세계 진보적력량의 리익에 맞게 조직하고 재편성하여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지역적인 국제금융기구들이 창설되어 운영되고있으며 이미 창설되어 운영되고있는 국제금융기구안에서도 그 나라들의 역할이 높아지고있다.

론문에서는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와 그에 맞게 제국주의자들의 금융제책들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주체적립장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도들을 해설하려고 한다.

2. 본 론

2.1.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난 변화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는 첫째로, 지역적 및 지역사이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역적금융기구들이 출현한것이다.

최근시기 세계적으로 주목되고있는 지역적금융기구들은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과 브릭스개발은행이다.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AIIB)은 아시아지역 나라들의 하부구조부문에 대한 대부 및 투자를 목적으로 2015년 12월에 창설된 지역적국제금융기구이다.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교통, 에너지자원, 통신 등의 하부구조부문에 대한 대부, 주식투자 및 담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은 그 어느 개별적인 나라의 투자은행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투자은행을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아시아지역 나라들의 하부구조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2013년에 중국이 제안하여 여러 나라와의 합의밑에 2015년말에 창설되어 2016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다.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에는 중국, 인디아 등 아시아와 중동, 유럽나라들이 성원국으로 가입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였으며 성원국들은 앞으로 이 은행으로부터 하부구조부문에 대한 투자를 받을수 있다.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의 공동출자금은 1 000억US\$이며 그가운데서 중국이 500억 US\$를 출자하여 최대의 주주로 되고있으며 은행주식의 67%를 소유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투자 및 자금조달결정채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있다. 또한

싱가포르가 2억 5 000만US\$를 출자함으로써 전체 주식의 0.48%를 가지게 되며 뉴질랜드가 앞으로 5년동안에 약 8 720만US\$를 장기분할출자하게 되는것을 비롯하여 이 은행에 가입한 나라들이 일정한 정도의 자본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게 되어있다.

아시아지역 나라들은 경제발전수준이나 경제운영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 하고있다.

아시아나라들의 경제적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데서 하부구조부문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제하부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그것이 완비되어야 경제가 발전할수 있다.

경제하부구조가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지만 아시아지역 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에는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로부터 하부구조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지 못하고있다.

아시아경제는 세계경제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아시아지역은 경제발전잠재력이 풍부하고 인구도 많지만 하부구조가 완비되지 못하여 도로, 다리, 철도, 항구, 통신 등의 하부구조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아시아나라들에서 하부구조투자에 대한 수요는 적어도 8조US\$이며 매해 평균 8 000억US\$의 투자가 요구된다고 한다. 그중에서 68%는 하부구조시설을 새로 건설하는데, 32%는 현재의 하부구조시설을 보호유지하는데 쓰이는 자금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나라들에 존재하고있는 국제금융기구들로서는 이러한 거액의 자금을 제공할수 없게 되어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에서 해마다 아시아나라들에 충분히 제공한다고 하는 자금은 대체로 200억US\$밖에 안되며 그것도 부대조건이 너무나 엄격한것으로 하여 아시아나라들의 방대한 자금수요를 만족시킬수 없게 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역적금융기구인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의 투자를 통하여 아시아나라들이 하부구조부문에 대한 설비와 자금을 해결하는것은 이 부문을 완비하여 앞으로 국내경제와 지역적인 경제발전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브릭스(BRICS)개발은행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여 현존국제금융기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다.

일명 신개발은행으로 불리우는 브릭스개발은행은 세계의 5대신흥경제국들인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로 구성된 브릭스가 2012년에 공동으로 제안하여 2014년 7월 15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6차 브릭스수뇌자회의에서 정식 합의되었다.

이 은행의 자금규모는 1 000억US\$로서 발전도상나라들이 단기적인 류동성압박을 피할수 있도록 하는것과 함께 브릭스성원국들사이의 협조를 보다 긴밀히 하고 세계금융보안망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이 은행은 주로 발전도상나라들의 하부구조분야에 대한 투자와 나라들사이 금융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는 둘째로, 지역적범위에서 단일화폐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는것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자본주의나라들뿐아니라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대다수 나라의 경제에 커다란 파괴적영향을 미치였다.

세계금융위기는 세계금융시장뿐아니라 실물경제부문들을 비롯한 전반적경제부문들에서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초래하고 그것을 파국적위기상태에 몰아넣었다.

아시아나라들에서 중국 홍콩의 주가는 금융위기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5%이상 떨어졌으며 유럽에서도 주가의 대대적인 폭락으로 하여 금융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폭락으로 2009년 3월까지 세계주식시장에서 입은 피해액이 50조US\$에 달하였다.

세계금융위기의 파국적후파로 여러 나라에서 기업들이 리운손실을 입었으며 그로 하여 심각한 사회경제적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확대되게 된것은 불합리한 현 국제금융체제와 관련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화》된 경제로서의 모든 나라와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제국주의나라들의 금융력이 임의의 나라와 지역에 제한없이 침투해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금융개혁을 집요하게 강요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의 강박에 못 이겨 금융분야를 개혁개방한 결과 동남아시아금융위기를 비롯한 국제적인 금융위기들이 연이어 일어났으며 여러 나라가 제국주의나라들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를 받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로부터 현시기 무역,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기준통화로서의 달러를 리용하지 않고 배척하며 지역적범위의 단일화폐도입을 위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있다.

200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세계무역거래에서 65%는 달러로 결제가 진행되었지만 오늘날 달러에 의한 무역거래는 50%이하로 대폭 떨어지고 많은 경우 유로나 다른 전환성화폐들로 거래가 진행되고있다.

로씨야는 2006년 5월에 독자적인 원유거래소를 내오고 원유거래대금을 루블로 결제할것을 제기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정식으로 이러한 거래를 시작하였다. 2007년 신흥-베제르부르크에서 진행된 국제경제연단에서 로씨야는 2020년까지 모스크바에 국제금융센터를 창설하고 루블을 독립국가협동체지역화폐로 만들기 위한 구상을 제기하였다.

알바성원국들은 자원개발과 산업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성원국들호상간의 협조와 통합을 다그쳐나가고있으며 특히 세계금융위기에 대처하여 수뇌자회의를 열고 단일화폐 쑤끄레에 의한 지역적인 금융체제를 수립할데 대해 합의한데 이어 그 실천적조치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쑤끄레를 무역결제화폐로 정식 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남아시아국가련합(아세안)은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실천적조치의 하나로서 성원국들사이의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있으며 상해협조기구 성원국들도 공동화폐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를 비롯한 만협조리사회 성원국들도 새로운 통화동맹협정을 체결하고 유일화폐도입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단일화폐에 관한 협정체결에 따라 화폐리사회를 내오고 앞으로 만지역중앙은행을 창설하려 하고있다.

남아메리카남부공동시장 성원국들도 달러에 의한 결제를 결정적으로 줄이고 당면하여 성원국들의 민족화폐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현시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한 국제금융통화체제에 의한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금융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의 변화는 셋째로,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정치경제적지배와 예측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있

는것이다.

현존국제금융기구들은 몇몇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발전도상나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예측하기 위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금융기구들이다.

이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은 현존국제금융기구들에 대응할수 있는 새로운 지역적금융기구들을 내움으로써 그들의 정치경제적지배와 예측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있다.

브릭스는 신개발은행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현존국제금융기구들과 병존하면서 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금융기구로 되게 하려고 하고있다.

브릭스는 서방위주의 현 국제통화금융체계에 불만을 가지면서 브릭스나라들사이의 호상협조에 기초한 하나의 극을 창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오늘 국제경제무대에서는 브릭스를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와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일극화》의 경제구도가 허물어지고 발전도상나라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관계가 형성되고있다.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의 창설 역시 《일극화》책동에 파렬구를 내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국주의자들의 통화금융적지배책동을 분쇄하는데서 아시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아시아를 세계제패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침략과 략탈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은 동남아시아나라들에서의 경제의 급격한 장성에 겁을 먹고 쏘로스를 내세워 통화금융위기를 조작한 다음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로 그 나라들의 경제를 제 손아귀에 거머쥐려 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와 같은 경제기구를 조작하고 그 통제주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아시아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고 획책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이 창설된 현시점에서도 이 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구로 정식 설립되는 경우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새로운 경쟁자가 나서게 되며 국제금융계에서 저들의 지위가 약화될것을 우려하여 이에 반기를 들고 다른 나라들이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배와 예측을 배격하고 자체의 금융기구로 경제발전을 이룩해가려는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2.2.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

현시기 국제금융기구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금융제책동에 편승하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나라들을 금융적련계에서 차단시키고 압박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들의 침략성, 략탈성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다 공인하고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를 완전히 대신할만 한 금융기구나 국제통화가 출현하지 못하고있다.

한편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성격의 국제금융기구들의 활동에 대항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지역 및 지역사이의 련합으로 브릭스개발은행,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과 같은 새로운 지역적국제금융기구들을 련이어 출현시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일극화》책동에 파렬구를 내었으며 성원국을 세계적범위로 넓혀나가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해나가고있다.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에 대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

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배격하고 국제금융분야에서의 다극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을 배격하고 공정한 국제금융관계를 수립하는데서 발전도상나라들의 국제금융분야에서의 다극화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를 배격하고 금융분야에서 다극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제국주의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를 짓부시며 자기 발전의 길로 나가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환률제도분야에 남아있는 제국주의나라 통화와의 예속적인 련계를 끊어버리고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거래에서 민족화폐들을 적극 사용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딸라의 지배적지위에 맞서 지역단일화폐들을 내오기 위한 공동행동에 떨쳐나서야 한다.

공정한 국제금융관계수립,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다극적인 국제금융기구들을 창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적국제금융기구들을 더 많이 창설하고 자체의 힘으로 운영해나가며 제국주의나라들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들에서 탈퇴하여 새로 등장하는 다극화력량에 합세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지역적국제금융기구들은 자기의 지역적인 울타리를 쌓지 말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적극 단결하고 금융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일치단결로 국제금융분야에서의 다극화를 실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낡은 국제금융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금융관계를 수립하는데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에 대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이 통화금융분야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이다.

현국제금융관계는 아직도 국제통화기금을 중심으로 하고 그와 련결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을 보조적공간으로 하여 움직이는 금융체계이다.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낡은 국제금융기구들의 지배권을 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으며 제국주의금융기구들이 성원국들에게 금의 생산과 수출입, 상품의 수출입, 국제수지, 국민소득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요구한다. 제국주의국제금융기구들에 들어가는것은 지배와 예속의 울가미를 스스로 쓰는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적자립을 선사하지 않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을 도와주지도 않는다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요하고있다. 그러므로 발전도상나라들은 낡은 국제금융기구들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자체의 민족통화금융제도를 건설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체의 통화금융기구를 가지는것은 각 나라 통화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고 환률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제통화기금체계가 과탄되어가고있는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체의 통화금융체계를 확립하여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독자적으로 내오려고 하는 새로운 국제통화금융기구는 융자활동을 통하여 국제수지에서 적자를 내면서 자금난을 겪고있는 나라들에 융자해주는것을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체의 통화금융기구를 가지면 자금이 요구될 때에는 거기에서 자기가 출자한 몫의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범위내에서 용자를 받을 수 있을뿐아니라 다시 사들이는것을 전제로 하여 자기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공동으로 리용하는 국제통화를 구입할수도 있다. 또한 중앙은행들사이의 협정에 기초하여 민족통화를 서로 교환하여 리용할수도 있게 된다.

나라들사이의 경제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자면 각국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상 차이로 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으로 합의하여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독자적인 통화금융기구를 가지면 나라들사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체의 국제통화금융기구를 가지고 통화금융문제들을 해결하면 국제무대에서 발언권도 높이고 제국주의자들의 통화금융적지배와 약탈도 성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속임수를 간파하고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데로 투쟁의 창끝을 돌려야 한다.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에 대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새롭게 출현하고있는 지역적국제금융기구들을 우리 나라의 금융활동에 유리하게 리용하는것이다.

현시기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이나 브릭스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은 통화금융관계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낡은 국제금융기구체계에 완강히 저항하고있으며 가입자선정이나 대부대상규정에서 발전도상나라위주의 체계를 세우고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융기구들을 적극 리용하는것은 조성된 실태로 보나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파렬구를 내는 의미에서 보나 다같이 의의있는 사업으로 된다.

현시기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이나 브릭스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은 자원개발과 하부구조수립에 주되는 투자를 진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금융기구들의 투자를 받아들일수 있는 법적, 경제적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있다.

우리 나라는 자주, 평화, 친선을 중요한 대외정책리념으로 내세우고 대외관계 특히 경제분야에서 나라들사이의 경제적련계와 교류를 확대발전시켜왔다. 우리 나라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을 비롯하여 20여건의 외국투자관련법과 100여건의 시행규정제칙을 발표하였다. 우리가 발표한 투자관계법들은 그 구성체계와 내용 특히 법규의 객관성과 공정성, 내용의 풍부성, 간결성과 통속성에 있어서 국제기구 및 외국투자자들, 법전문가들속에서 인정을 받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라선지구와 황금평-위화도지구를 비롯한 경제활동에 유리한 여러 지역을 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교류의 통로로, 리상적인 지역경제협조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지대로 건설해 나가고있다. 우리 나라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무역지대 등 여러 경제지역을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봉사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경제무역지대건설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지역적금융기구들과의 협조를 잘 진행해나간다면 얼마든지 필요한 자금을 받아들여 효과적으로 리용해나갈수 있다.

현실은 국제금융관계에서의 변화에 맞게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끝장내고 공정한 국제금융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여러 지역적국제금융기구들과 주동적인 금융활동을 벌려나간다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유리한 대외금융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3. 결 론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은 그것을 우리 혁명과 건설에 유리하게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찾고 실현해나가며 현 국제금융기구들이 가지고있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측면들을 자주와 평등의 원칙에 맞게 개변하며 나아가서는 새롭고 공정한 국제금융기구들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현 국제금융기구들은 제국주의자들이 국제통화금융분야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며 독점자본의 과잉자본수출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투자은행이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은 설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에 대한 금융적지배와 략탈의 도구로 리용되어왔다.

우리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줄달음치는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들을 우리의 리익에 맞게 리용하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제국주의자들의 금융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국제금융기구,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 신개발은행